



KBS

노동조합 특보

발행인 정조인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전화 02-781-2990 | 팩스 02-781-2999

이메일 kbsunion@kbs.co.kr | 트위터 @kbs_union

2018년 2월 26일 발행

kbsunion.or.kr

26호

낮 부끄럽고 민망했던 사장 후보자 정책발표회



이상요 후보

권위적, 시민들 눈높이 못 맞추고
고상한 척



이정옥 후보

애써 색깔 물타기, 설명도 갈팡질팡



양승동 후보

햇바지 자처, 질문 핵심도
파악 못 해 변죽만 울려



혹시나에서 역시나로 끝난 자질과 능력 부족 알맹이 없는 동어반복에 자문단 즐겁게 만들어

지난 토요일(24일) 공영방송 KBS 역사상 최초로 사장 후보자들이 시민들 앞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시민자문단의 평가점수를 40%를 반영하는 '시민자문단과 함께하는 KBS사장 후보자 정책발표회'가 열렸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 중 어느 누가 보궐임기의 사장이 되어도 위기의 공영방송 KBS를 정상화하고 바로 세우기에는 턱없이 능력과 자질이 부족했다. 후보자들 모두가 알맹이 없는 정책과 기존의 떠돌던 것들을 짜깁기해서 시간 때우기에 급급했다.

대체 이런 후보들을 평가하고 KBS를 정상화 시키고 싶다는 열망으로 전국에서 모인 160명의 시민자문단이 KBS 수준을 어떻게 생각할지 낮 뜨겁고 민망할 따름이다. 후보자들의 발언이 얼마나 관심을 못 끌고 지루했으면 심지어 조는 모습의 시민단도 보였으니 두말해 무엇하겠는가.

1. 방송독립은 커녕 정권의 적자 타령만

-여전히 정권 눈치 보는 후보들

정책 발표 첫 번째 세션은 '공영방송 철학과 비전 발표'였다. 세 후보 모두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위기의 본질에 대한 인식과 고민이 부족했다. 공영방송이 정치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것의 핵심은 여론 추천 7과 야권 추천 4로 구성되는 이사회 구조와 더불어 그 상위 기구이자 이사를 추천하는 방통위 위원 구성이 여론에서 다수를 추천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 어느 후보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렸다. 당장 표를 얻어야 하는 이사회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통령이 두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벌써부터 정권의 눈치 보기 급급한데 사장이 되고 난 다음에야 볼 보듯 뻔한 것 아니겠는가.

세 후보 모두 공영방송을 국민과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했다. 공영방송이 정권이 아닌 국민의 방송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위적 명제다. 그러나 공영방송이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는 것은 그 결과물이다. 어떻게 국민과 시민의 품으로 KBS를 돌려놓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나 정책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공영방송 위기에 대한 본질과 핵심을 피해가고 정권의 눈치를 보는데 어찌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겠는가.

방송 독립은 정권을 가려서서 안 된다. 후보들은 자신이 정권의 적자임을 환변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였다. 공영방송 사장은 정권에 맞서 홀로서야 한다. 역대 모든 낙산 사장이 공영방송을 망쳐 놓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과 정권을 비판하고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KBS 구성원 모두는 너무나 오랫동안 경험하였다. 혹시나 하는 기대는 역시 헛된 희망이었다.

2. KBS 내부 적폐청산, 원칙과 기준 제시 안해

이상요 후보 | 노조 요구 반영, 조사위원회 구성
양승동 후보 | 노사 공동참여 위원회 구성
이정옥 후보 | 사원 총의 모아

이 날 'KBS 내 적폐청산 방안'에 대해 묻는 질문이 있었다. 사회적 화두이기도 하지만 KBS 내의 적폐 청산에 대해 시민들도 궁금해하고 있다. 이상요 후보는 'KBS 훼손 주요 인물에 대해 노동조합의 요구를 반영하겠다. 조사위원회 만들어서 편파, 유착 보도 등 집중 조사하여 인적정산' 하겠다고 밝혔다. 양승동 후보는 '노사가 공동 참여하는 KBS 정상화 위원회를 설치해 방송 공정성 위반, 탄압 사항, 인사 전횡 등 진상 조사' 해 내부 적폐 청산하겠다고 했다. 이정옥 후보는 '사원의 총의를 모아 인적, 제도적 청산하겠다' 라고 밝혔다.

세 후보 모두 노조를 포함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사내 적폐를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대상을 규정하고 청산하겠다는 것인지 어느 누구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양 후보는 자신의 발언 속에서 '지난 10년간 투사 이미지가 있으며 사장이 되면 보복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도 갈등 해소와 통합을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없었다. 사내외의 우려를 의식하면서도 '보복은 없다'는 말은 하지 않아 그 본심이 의심된다. 자문단은 유일하게 양승동 후보에게 경력상으로 보면 '직위와의 관계에서 한쪽으로 치우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다. 양 후보는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피했다. 사실 사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편향성에 대한 우려와 다양한 구성원들의 대표성이 없어 사내 편 가르기가 염려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공영방송 KBS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과거 청산이 반드시 필요하며 KBS노동조합도 적극 참여해 인적, 제도적 적폐청산에 앞장설 것이다. 그러나 적폐청산은 반드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하며 특정 세력의 분골이나 사장의 비판 세력 적어내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 갈등을 통합하고 통합하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

3. 알맹이 없고 짜깁기 한 허무한 정책들

-시민 표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 남발
-실효성 없는 지르기식 정책 발표

[세션 2, KBS 과거 정상화 방안, 미래전략, 시청자권익 확대] 발표 시간은 과욕과 준비 부족이 부른 참사에 가까웠다. 후보자 본인들이 8개월짜리 사장인 줄은 모르지 않

을 텐데, 3년짜리 사장 행세를 하려다 보니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하려고 했는지 알맹이 없는 정책들을 나열하기에 급급했다.

세 명 다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고사하고 KBS를 바로 세울 정책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상요 후보는 '3050전략이라며 인건비를 30%로 축소, 제작비를 50%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공사의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그것도 8개월이란 임기 내에 이것을 실현하려면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없는 불가능한 것인데 조합과 전면 전이라도 하겠다 것인가? 공영방송 사장으로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 'KBS 시설을 활용해 무료 와 이파이어망을 전국에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KBS가 통신사인가 방송사인가? 기술적인 부분은 차치하고 관련 정부 부처나 관계 기관의 동의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시민의 표를 얻기 위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주파수대의 여유가 있다면 이는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확대하는 데 사용해야지 선심성으로 제시할 정책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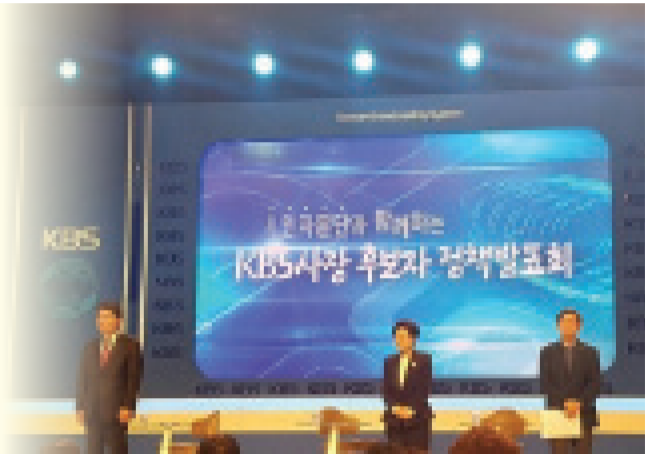
양승동 후보는 '뉴스타파와 같은 대안 언론도 KBS 플랫폼에서 방송할 수 있도록 개방' 하겠다고 말했다. 본인이 KBS 사장 후보인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대표인가? KBS뉴스가 공정하고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우리 내부의 자성과 반성 그리고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본인인과 뜻을 같이한다고 외부 매체를 끌어들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또 'KBS가 보유한 방대한 아카이브를 시민에게 개방' 하겠다고 했다. 물론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기에 KBS 자산이 국민의 것이라는 대전제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아카이브 자료는 엄연히 KBS의 자산으로 이를 통해 2차, 3차 수익구조를 만들어 광고 비중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더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다. 더불어 아카이브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는 생각이나 해 보았는가. 시민의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 아닐 수 없다.

이정옥 후보는 '유료방송 가입자 공유로 7,000억 원 확보, KBS 월드 등의 글로벌 광고 전략으로 전 세계 대상 100억 원 이상 기대' 한다고 발표했다. 대체 무슨 근거로 나온 수치인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만 된다면 왜 지금까지 실천하지 못했는가? 현실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이제 오늘(26일) 이사회는 사장 후보들 면접을 거쳐 보궐임 임명 사장을 뽑는다. 후보자 정책발표회를 통해 드러난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인물을 뽑는다면 KBS노동조합뿐만 아니라 KBS 전체 구성원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KBS노동조합은 이사회가 정치적 담합이나 야합을 벌이지 못하도록 예의주시할 것이며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다. ❄

시민자문단의 질문을 이해하긴 했는가?

시민자문단은 6시간에 걸친 후보자들의 정책 발표를 듣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궁금증을 질문하였다. 하나 후보자 누구도 시민자문단의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강화하겠다', '대변하겠다' 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시민자문단보다 KBS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사장 후보자들. 과연 최소한의 자질은 있는 것인가?



■ 다음은 정책발표회의 일부 질의응답 내용을 발췌하였다 ■

? 지역국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지역국에 최소 인원만 남기고 총국으로 옮긴다는데 총국이 비대해지지 않나? 배치 인원의 활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이정옥 후보 답변

지역국 인력이 80여 명 정도 유지되면서 뉴스만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하고 방만해졌다. 총국에서의 역량을 강을 강화하면 지역국과 소통할 수 있다고 본다.

평

지역국의 인력을 축소하고 총국 단위로 조직을 바꾸겠다고 한다. 지역 분권화 시대에 지역국 활성화가 아니라 지역국을 폐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과도한 추측인가?

? 시민의 플랫폼, 시청자권익센터 신설에 대한 구체적 방안, 방식, 기대효과는?

양승동 후보 답변

현 시청자국은 보여주기가 식이다. 실제 시청자를 위해서 하는 역할은 미진했다. 시청자국을 확대하여 시청자권익센터로 간다는 것이다. 공개방송을 할 때 방청객이 많이 오는데, 특히 여성분들 화장실에 대한 임시 화장실, 최대한 편의를 봐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

평

방청객을 위한 화장실 설치 시청자권익센터 신설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검토하고 조치할 수 있는 일이다. 화장실 외에 시청자를 위한 어떤 역할을 위한 시청자권익센터 신설인가? 명패만 바꾸겠다는 것인가?

? KBS 독립 선언한다고 했는데 대기업 자본으로부터 독립 가능한지?

양승동 후보 답변

KBS 이사회를 선임하는 방식이 청와대로 완전히 독립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바뀔 것이라 생각된다. 내부적으로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국장 임면동의제에 핵심이 있다고 본다. 과거 MBC, YTN은 국장 임면동의제를 노사합의가 있었다. 나아가 내부 지지가 일정 부분 이상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

대기업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은 언제쯤 선언할 것인가?

? 외주제작 불공정 타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이상요 후보 답변

외주제작사를 결정할 때 투명하지 않다. 불공정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많다. 협찬을 받는다는 것은 협찬사에 프로그램 내용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것들을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외주제작비를 현실화 시켜야 한다. 표준제작계약서를 작성하여 인건비 등을 KBS가 인정하고 받아줘야 한다. 선전에서 협찬이 들어와야 한다거나 불공정이 없도록 관리하는 부서를 신설하겠다.

평

외주 관리 부서 직원들을 이렇게 불신하는 후보가 사장 자격 있나?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닌 오히려 직원들을 매도하지 말기 바란다. 게다가 외주제작비 현실화는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지상파 3사의 외주제작비 비교표라도 내밀면서 정책 제시하라

? 시청자 권익확대 일환으로 미디어복지를 애기했다. 정부와 이파이어망 재원 조달 방안 및 연도별 계획은?

이상요 후보 답변

KBS가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600MHz중 30MHz가 남아있다. 이 부분을 활용하면 와이파이어망을 구축할 수 있다. KBS가 가진 노하우,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규제, 허가가 필요하다. 이것이 구축된다면 가정의 통신비 부담이 많을텐데 3만 원 정도, 연간 40만 원 줄일 수 있다. 통신사의 망과 다 연계하여 하면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시간 초과)

평

통신사 시장을 뺀 자리가 아닐진대, 유류 주파수가 남아있다면 보다 공적 방송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또한, 시민자문단이 궁금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연도별 계획은 언제쯤 마련할 것인가? 끝으로 망 중립성에 대한 고민은 있는가?

?

편성위원회가 정상화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강화하고 팩트체크 및 미디어비평에 대한 구체적 방안? 국장 임면제만이 답은 아니라고 본다.

양승동 후보 답변

편성위원회는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보도, TV, 라디오 편성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있다. 보도를 예를 들면 관리자 5명, 실무자 5명으로 운영하게 되어있는데 2000년도 법제화, 2003년 이후부터는 2008년까지 제작 자율성이 향상되어 별로 피부로 못 느꼈다. 사측에서 반기하거나 교묘하거나 질질 끌어서 갔다.

평

시민자문단도 편성위원회의 정상화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사장 후보자로서 어떠한 정상화 방안, 팩트체크, 미디어비평에 대한 방안을 물어보는 것이 아닌가?

?

신뢰도 회복의 일환으로 뉴스 가치 재정립은 무엇이고, 뉴스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은?

이상요 후보 답변

보도의 영역을 세 가지로 합의, 논쟁, 일탈의 영역으로 나누었다. 합의는 인권 평화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 하는 가치 영역이다. 논쟁은 찬성, 반대, 다른 의견이 있다. 논쟁의 장을 마련 해줘야 한다. 일탈은 자본의 부정부패, 비리 영역이다. 심층 탐사 영역이다. 그동안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합의, 일탈의 영역을 외면했다. 각각의 영역을 제대로 되도록 기능을 부여하겠다.

평

시민자문단의 자리가 낮아 보여서 교수로 강단에서 있는 것으로 착각한 것은 아닌가?

성명

KBS사장의 필수 조건은 “방송의 독립과 혁신”

우리 노조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바라는 사장의 조건은 명확하다. 바로 방송의 독립을 이루고 지키며, 혁신을 이루는 사장이다. 나아가 온 국민이 염원하는 공영방송의 모습은 정치 독립을 통한 건강한 비판과 견제, 올바른 정보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사장은 정권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자유로운 비판과 견제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정권의 앞잡이가 아닌 와치독 역할을 하는 KBS는 당연한 것. 방송법 개정도 이를 위한 것이다.

성경에서는 카이사르는 카이사르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돌려주라고 했다. 불경에서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했다.

정권은 정권의 길을 가고, KBS는 KBS의 길을 가면 되는 것이다.

질문한다. 사장 후보들은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자신이 있는가?

사장은 혁신을 해야 한다.

디지털 모바일, 뉴미디어 분야에서 KBS는 타사보다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 각종 플랫폼에 대한 변화의 노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방송 매체에 덕지덕지 붙여놓은 보조적인 기능에 그칠 뿐 혁신적인 변화는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 상태로 둘 것인가? 매체 다변화를 주도하고 바뀌고 있는 시청자에게 더 다가가기 위한 전략의 크기는 너무나도 작아 보인다.

스티브 잡스는 퍼스널컴퓨터와 디지털 모바일 두 번의 혁신으로 신화가 됐다.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 민간 우주 로켓, 태양광 발전 도시를 하나하나 현실화시키며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사장은 특정 노조가 규정하는 투쟁에 동참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얼마나 거시적인 시각으로 기존의 틀을 깨고 진정한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누가 적폐인지는 혁신이 끝나고 나면 자연히 가려지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질문한다. 사장 후보들은 KBS의 혁신을 주도할 자신이 있는가?

KBS노동조합

자랑스런 조합원



건축기전부 손민기 조합원

KBS 작은 거인, 어린이 뺑소니범 잡아

지난 21일 저녁 손 조합원은 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술이 한 순배쯤 돌았을 때, 갑자기 손 조합원이 무엇인가 놀란 듯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갔다. 모두 어리둥절해 있는데, 옆의 동료가 ‘방금 도로에 아이가 쓰러졌는데 아이를 친 차가 그냥 갔다’고 말했다.

손 조합원은 수백여 미터를 뛰어가며 112와 119에 신고 전화를 했다. 그리고 신호에 정차해 있는 뺑소니 차량 유리문을 두드리며 아이를 치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냐고 했다. 아이를 친 사실을 부정하던 운전자는 ‘내가 목격했고 경찰에 신고했으니 아이에게 되돌아가자’고 했다. 이에 운전자는 사고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 뒤 경찰과 119가 도착해 사고를 수습했다. 다행히 아이는 많이 다치지 않았으나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손 조합원은 ‘저도 아이를 기르는 입장에서 사고 순간을 보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뺑소니를 잡아야겠다는 생각 밖에 없었습니다’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따뜻한 마음과 용기를 가진 손 조합원이 있어 너무 행복하고 든든한 시간이었다.

손민기 조합원은 우리의 작은 거인입니다.